

“교육 인프라로 새로운 출판문화를”

제19회 출판경영자 세미나… 이해찬 교육부장관·김인회 교수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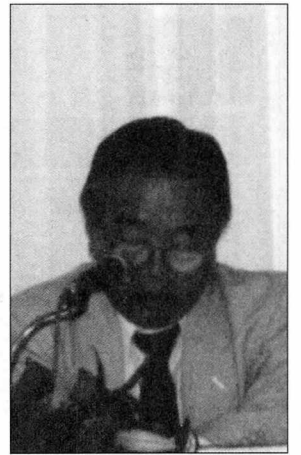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가 주최하는 제19회 출판경영자 세미나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서귀포 칼호텔에서 열렸다. ‘열린교육-독서풍토조성과 출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해찬 교육부 장관의 기조특강 ‘열린교육-독서하는 풍토’와 함께 김인회 연세대 교수의 ‘열린교육과 출판’, 유태중 건양대 석좌교수의 ‘경영자의 건강관리’ 등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해찬 장관과 김인회 교수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지난 6월 25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19회 출판경영자 세미나.



이해찬 장관.



김인회 교수.

열린교육 위해 독서교육 강화할 예정

이해찬(교육부 장관) — 21세기 정보지식 사회로 향하는 과정에서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전지구적인 규모로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 기능이 변화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제 지식 자체의 전수보다는 대량의 지식·정보를 변별하고 선택·관리·활용하는 능력을 교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최근 ‘열린교육’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는 열린교육을 위해 독서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적으로 독서는 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도서의 개념을 전자도서·TV·인터넷·CD-ROM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독서가 교양함양 수단이 아닌 기본적인 학습 시장으로 바뀌고, 교과와 별도로 이루어지던 독서교육이 교과수업과 연계되어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1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서교육발전자문위원을 30명으로 확대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성장단계별·관심분야별로 체계적인 독서를 위한 우수도서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독서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해 교사·학생·학부모에게 도서선택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독서활성화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 단원별로 권장도서 목록을 제시하고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독서지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학급단위의 독서발표회 등으로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교육 결과를 교과성적에 반영하거나 학생생활기록부에 서술식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각 부문별 협력과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TV, 각종 언론기관을 활용한 모교 도서 보내기 등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단체의 독서진흥운동을 지원해 독서교육이 학교교육에 정착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평생교육·재교육의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교육이 양적·질적으로 확대·심화되는 추세이므로 독서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책을 공급하는 것이 출판인들의 과제다. 이제 출판계도 열린교육을 위한 교육개혁 운동에 과감히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열린교육과 독서문화에 출판계 역할 중요

김인회(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 19세기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군국주의적인 제도교육 중심의 교육관으로 일관해왔다. 교육의 목적은 창조적 개성을 기

르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회체제와 가치에 대한 순응 또는 적응능력을 기르는 데 있었다.

지난 1세기 동안 정치적, 시대적 상황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 작업을 추진했지만 교육의 성격과 체질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개혁의 역사를 지배해온 철학이 같았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는 95년부터 4차례 걸쳐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5·31 교육개혁안’으로 불리는 1차 개혁안은 자율화·소비자중심 교육·경쟁원리 도입을 교육개혁의 원칙으로 내세웠다. ‘열린교육’이라는 구호는 우리나라의 참담한 출판계 현실에서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열린교육이 시행되면 책 읽는 유행이 몰아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열린교육으로 독서문화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성급한 기대 같다. 우리나라 교육문화의 총체적 체질변화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열린교육과 출판문화 내지 독서문화와 관련지을 때 다음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열린교육과 출판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문화관광부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열린교육이 진정한 소비자 중심의 자율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출판계가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셋째, 국가는 공공도서관의 확충,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개발과 확충 등 교육 인프라를 확장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출판문화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점을 범국가적 상식으로 확인시킬 책임은 일차적으로 출판계의 몫이다. — 정리·박천홍 기자

스케치

우의 다지며 재충전의 시간 함께해

주제발표에 토론 없어 아쉬움

이번 출판경영자 세미나에는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신현웅 문화관광부 차관, 정기영 국립중앙도서관장, 민병덕 출판학회 회장 등 정관학계 및 출판계 인사와 각 언론사 기자단 등을 포함, 약 160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성과로는 연이은 출판계 약제와 IMF구제금융의 파상공세 앞에서 망연자실하던 출판인들이 서로 우의를 다지면서 심기일전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는 데 있다.

출판인들은 정부의 출판지원금 활용방안, 학습참고서 도매상들의 부도에 따른 대책, 과학적 경영기법의 도입 등에 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세미나 이튿날에는 제주도의 역사와 전설을 찾아 떠나는 답사형식

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행사 진행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먼저 첫째날에 기조특강과 주제발표가 몰려 있어 부담을 느낀 반면 나머지 일정은 상대적으로 긴장감과 응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주제발표에 질의·토론 시간이 없었다는 지적도 많았다. 또한 범출판인들의 모임이었던 만큼 주최측이 분야별 모임을 조직화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으면 더욱 알찬 행사가 됐으리라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출판인들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출판인들의 책임을 확인하는 만남의 장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천홍>